

# 농산물 통합마케팅 평가 수상

남원시 농가경쟁력 확보  
소득안정 기반 구축  
농산물 산지유통 평가 우수



남원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결실을 맺었다.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박해근)이 올해 농산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농가경쟁력 확보와 소득안정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북도 등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산지유통분야 관련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인센티브 사업비와 자금을 확보, 생산 농가에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농산물 유통여건 속에서도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조직의 끈기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스상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3월에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전북 산지유통구조개선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확보해 공산출하 상품화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동선별 참여

농가의 상품화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한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A등급' 조직으로 선정되어 산지유통활성화자금 102억원(무이자 87억원, 저리0.5% 105억원)을 확보해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농가에 선급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수확기전 농가소득 안정에 기했다.

지난 7월에는 농식품부가 주관한 '과실전문 APC 평가'에서 '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FTA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과수 관련 컨설팅과 농가교육을 실시해 과수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실대전 전시회 참가비용 등으로 사용해 남원시 농산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이강조 원예허브과장은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선호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농산물공공브랜드 '춘향예인'을 적극 홍보하고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효과

벼 건조가 어려운 상황서 농가에 곡물건조기 지원

남원시는 가을철 잦은 강우로 농촌에서 벼 자연건조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 농가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해 벼 적기 수확에 따른 적기 건조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10ha이상인 마을영농회, 농업법인, 작

목반 등을 대상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영농회 및 생산자 조직의 경우 자체 규약을 운영하고 참여농가의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남원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농작업 효율성 확대를 위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29대 지원하고 금년에는 33대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곡물건조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곡물건조기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벼 적기수확에 따른 적기건조에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라며, 본격적인 수확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하고 지대별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지진 안전주간 대피훈련 실시

남원시는 지진 안전주간을 맞아 공공청사와 시범민간시설인 남원원에농협 로컬푸드에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되고 지진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머리를 보호하면서 책상 밑이나 튼튼한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하

고, 지진이 멈췄다는 방송이 나오면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하는 요령등을 실시했다.

재난안전과 윤재중 담당관은 시민들에게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라면서 철저한 지진행동요령 숙지를 통해 안전한 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 확정

문화체육장 조기춘씨 등 6명 공동 수상

임실군민의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심민 임실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에서 임실발전을 위해 노력한 6명을 각각 선정하여 제37회 군민의장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 거주자나 출신자 중 공적이 훌륭한 사람을 추천,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군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26일간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된 10명의 후보자 중 현직실사와 소위원회, 본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문화체육장에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장을 지낸 조기춘씨와 산업장에는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필기(삼계면)씨, 공익새마을장에는 2015

년부터 관촌면지역발전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기훈(관촌면)씨 등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지극한 효심으로 모범이 된 효열장에는 정보연(덕치면)씨, 허춘형(임실읍)씨가, 애항장에는 재성남향우회 창립과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한 홍정표(운암면 출신, 재성남향우회)씨가 애항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다가오는 내달 6일 제56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민의 명으로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서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동안 임실발전과 효행을 실천하여 많은 기여를 해주신 선정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 아리



# 성묘객 안전위해 임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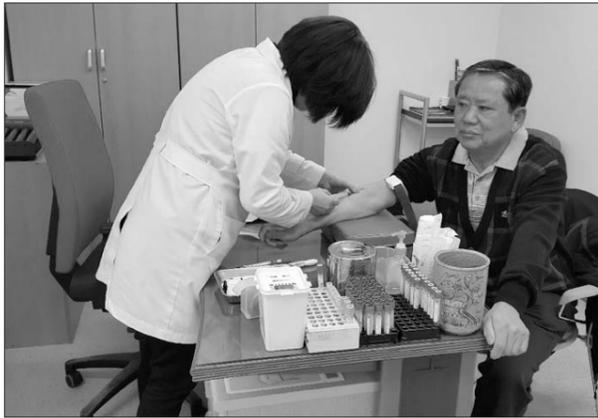
군은 산림이 군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예방,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악레포츠 등 다방면으로 매년 4km 임도를 개설하고 있다.

임도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임업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위험하므로 임도 통행시 안전사고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군은 강우 등으로 인한 사면 토사유출, 세굴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큰 사건사고 없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임도를 일제히 정비했다"면서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정겨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2년째 전립선암 무료검사를 시행했다.

# 순창군, 전립선 암 예방 적극 나서

만 50세 이상 지역민 500명

순창군이 중년남성의 활기찬 삶을 위해 남성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예방에 적극 나섰다.

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2017년부터 2년째 전립선암 무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립선암 무료검사는 만50세 이상 75세 이하 순창군민에 한해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전립선암 검사에서도 2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효과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남성 10대암 중 5위인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전립선암 검진은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50대 이상 전립선암 발병률 증가폭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 검사를 통해 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